

2025 December

FX Market Monthly Letter

연구위원 서정훈
seojh@hanafn.com

연구원 이유정
yjlee.r@hanafn.com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목차

I. 금리	3
I. 달러/원 환율	5
III. 엔/원 환율	7
IV. 유로/원 환율	7

금리

11월 동향

미 뉴욕금융시장 시 고평가 논란 등이 위험회피 자극을 통해 국내외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 반면, 한은 금융안정 기조 지속과 환율 안정 등에 의한 매파적 금리 동결 등으로 월 후반 금리 급등세 시현하며 마감

시 고평가 논란에 뉴욕금융시장 하락 여파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 다소 나타났지만, 미 ADP 고용 개선과 미 재무부 분기 국채 발행 계획 등 수급 악화 영향 등에 의한 미 국채금리 상승에 연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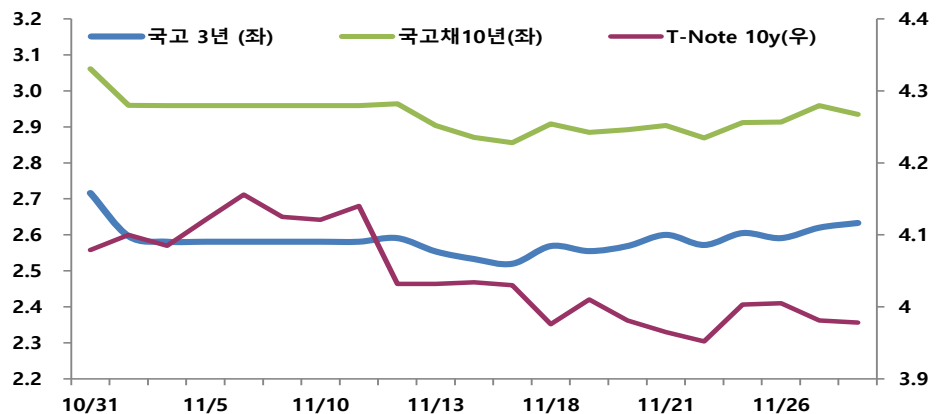
한은 총재의 향후 경제전망에 따른 정책 조정 언급 등 블루버그와의 인터뷰가 상당히 시장에 매파적 인상을 심어줌에 따라 국고채 금리 급등 양상

미 시 고평가 논란에 따른 위험회피 영향과 연준 당국자들 도비시 언급이 있었으나, 한은 금통위가 상당히 매파적이었던 시장 인식 등으로 금리 상승 추세 전환하며 마감

- 월 초반,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 확대 등으로 상승 출발한 국고채 금리는 뉴욕 금융시장 시 고평가 논란에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미 ADP 고용 시장 예상 상회 소식과 재무부 분기 국채 발행 계획 등이 시장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며 상승 전환
 - 월 초, 뉴욕 금융시장 시 고평가 논란 등에 따른 위험회피 강화 속 국내 기관의 국고채 매수 강화되는 분위기였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선물 순매도 확대 영향이 우위를 점하며 금리 상승 흐름 출발
 - 이어, 미 민간고용지표의 시장 예상치 상회 소식과 재무부 분기 국채 발행 계획 등이 시장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며 국고채 금리 상승 추세 지속한 국면
- 중반, 한은 총재 언론 인터뷰에서의 매파 발언이 시장 파장을 확대한 영향 속에 국고채 금리 급등세 시현. 이후, 미 민간 고용 지표 부진 여파 반영 및 유가 급락으로 하락 추세 전환했지만, 총재 언급 여파 지속 등이 시장 전반을 지배한 가운데 한은 구두 개입으로 하락 전환
 - 월 중반, 시장이 미 섯다운 종료 여부 살피는 가운데, 한은 총재 블루버그 인터뷰에서 경제전망에 따른 정책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점이 상당한 시장의 매파 인식으로 작용하며 국고채 금리 급등 시현
 - 이어, 미 민간 고용지표 부진 영향 등의 반영에도 한은 총재 매파 발언이 상당 기간 시장에 영향 미친 형국 보였으나, 당국 구두 개입 등 시장 안정 조치에 금리 3% 수준이 저향선 인식된 양상 전개
- 후반, 미 시고점론에 따른 위험선호 위축 영향 반영과, 연준 위원들 도비시 언급 등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 반영되며 금리 하락 후, 한은 매파적 통화정책 반영 등으로 큰 폭 상승 마감
 - 후반, 뉴욕금융시장 시 고평가 논란이 안전자산선호를 강화함에 따라 동 영향 반영되었던 국고채금리는 이어 연준내 비둘기 위원들의 통화완화 언급 등이 지속되며 금리 하락 추세 유지
 - 이후, 11월 금통위 금리 동결 결정 속에 일부 환율 상승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 속 지속적인 금융안정 우려 등을 반영한 매파적 금통위 평가에 따라 국고채 금리는 급등 양상 흐름 속 마감

11월 평균
국고채(3년): 2.58%
T-Note(10년): 3.98%

주요 시장금리 추이



단위 %

12월 전망

연준 위험관리 차원 인하 가능성 상존에도 물가 중시 매패 성향 우위 기조와 한은 인하 압력 완화 측면 등을 고려한 인하 기조 약화 움직임 영향 등으로 국고채 금리 소폭 상방 압력 우위 나타낼 전망

	1Q25	2Q25	3Q25	4Q25
국고채(3Y, %)	2.55	2.40	2.45	2.90 ^(f)

연준의 일부 도비시 인사들의 고용시장 우려 및 그간의 위험관리 차원 인하 기조 가능성에도 전반적인 관세 관련 물가 상승세 우려 여파 등을 반영하며 동결 가능성 높을 것으로 예상

최근 AI 고평가 논란 등에 의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다소 이어질 수 있겠으나, 중부유럽 종전 기대감 등의 위험선호와 상충하는 점 등을 고려시, 금리 방향성에 대한 영향은 다소 모호할 듯

12월 국고채(3Y) 금리는 2.95%~3.1%

- '25년 마지막 FOMC는 연준 내부의 양대 성향 충돌 양상에도 불구하고, 위험관리 차원 금리인하 기조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세 우려 여파 등으로 중단되며 동결 가능성에 무게 실릴 전망
 - 연준내 매패와 비둘기파의 통화정책 결정 의견에 충돌 양상 균열이 일부 나타나는 가운데 위험관리 차원 인하 가능성이 잠재하나, 관세 관련 물가 재상승 우려 측면이 다소 정책결정 우위 점할 전망
 - 섣달은 종료 이후, 고용 보고서 발표 지연되는 가운데 현 노동시장 국면이 노동 수요와 공급 모두 감소하는 국면 전환을 보이는 흐름. 여기에 대부분 물가 지표가 2%에서 여전히 괴리되는 양상 속 소비자물가 선행지표인 생산자물가지표의 상승 추세 등이 연준 매패 성향 우위에 영향 미칠 전망
- 최근 뉴욕금융시장 AI 고평가 논란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점은 안전자산 선호 요인이나, 우려 간 미국 중재 협상 진행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 속 세계 경기둔화 우려를 일부 해소하는 위험선호 요인으로 상기 요인과 금리 방향성에 다소 상충된 영향 미칠 전망
 - 최근 뉴욕금융시장 AI 고평가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 속 미국 노동시장 약화 등의 요인이 안전자산 선호 강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다만 위험회피 영향 정도는 점차적 약화될 것으로 전망
 - 반면, 중부유럽의 미국중재안에 따른 종전 협의 소식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감을 확대, 위험선호 요인으로 작용할 예상 속에 상기 요인과 함께 국내외 금리 방향성에 상충된 영향을 미칠 전망
- 11월 금통위는 하반기 들어 인하 행진 멈추고 네 차례 연속 동결. 여기에는 기존 금융안정 중시와 함께 쏠림 심화된 환율 안정에 대한 의지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판단. 여기에 내년 성장 전망 상향으로 경기부양 차원 인하 압력 완화된 측면 등 향후 매패적 성향 우위 점할 전망
 - 한은 금통위는 하반기 들어 국내 성장 모멘텀 강화 영향 고려 속 기존 금융안정 중시와 함께 쏠림 심화된 환율 안정 의지 일부 고려 가능성 등으로 네차례 연속 동결하며 매패적 의지 피력
 - 여기에 내년 성장 전망 상향과 현 물가 수준 여전히 높다는 인식 속 경기부양차원 인하 압력 완화된 점 고려 시, 향후 다소 매패성 될 것으로 보이는 정책 측면 등이 금리 하단 제한에 영향 미칠 전망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시장 약화를 고려하는 연준 도비시 움직임에도 물가 상승 우선시 연준 통화정책 가능성 · 중부유럽 지정학적 긴장 완화 영향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욕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한 AI고평가 논란 다소 지속 가능성에 의한 안전자산 선호

달러/원 환율

11월 동향

12월 금리인하를 둘러싼 연준 내 의견 분열 및 일본 재정건전성 우려로 인한 엔화 약세 등 대외 불안 요인과 달러 매수 우위의 수급 쏠림 영향 속에 환율 상승 추세 지속되며 1,470원대 마감

연준 금리경로 불확실성 반영한 글로벌 달러 강세 영향 속에 국내 증시 외국인 자금 유출과 수급상 달러 매수세 등에 따른 원화 약세 압력 더해지며 환율 상승 추세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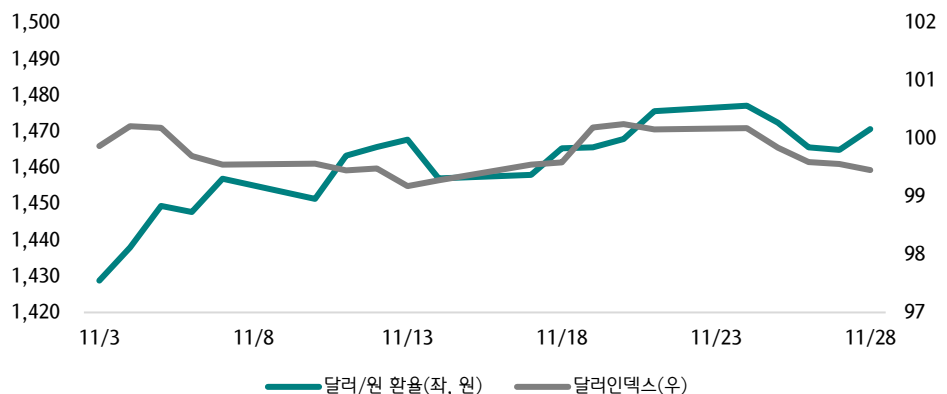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성 발언과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발표 소식에 하락 압력 받기도 했으나, 엔화 약세와의 동조화 및 연준 금리인하 기대 약화 등에 되돌림 시현

연준 관계자들의 도비시한 발언에 추가 인하 기대 되살아난 점이 달러 약세를 견인. 여기에 당국 경제감 고조되자 하락 전환했으나, 저가 매수세 유입에 반등하며 1,470원에서 마감

- 월초, 연준 당국자들의 매파적 발언으로 12월 금리인하 기대감이 약화된 가운데 국내 증시에 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 및 수급 불균형 지속되자 환율 가파르게 상승하며 1,450원대 진입
 - 월초, 지역 연은 총재들의 금리인하 반대 입장 표명 등 미 통화정책 불확실성 확대됨에 따라 글로벌 강달러 나타남. 여기에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대규모로 유출된 영향 더해지며 1,450원선 근접
 - 이후 역대 최장기간 지속된 미 정부 섣다른 해재 조짐 보이자 위험자산 선호 심리 일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거주자 해외투자 확대, 결제수요 등으로 인한 달러 매수 우위 수급에 추가 상승
- 월 중반, 외환당국 경계감과 한-미 관세협상 마무리에도 일본 재정 리스크로 인한 엔저 압력, 연준 금리 동결 전망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강달러 등 대외 여건 반영하며 재차 반등
 - 중반, 일본 재정악화 우려 및 BOJ 금리인상 지연 전망에 엔화 가치가 급락하자 원화도 동조화 흐름 보이며 1,470원대 진입했으나, 외환당국 구두개입과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발표에 10원 넘게 하락
 - 그러나 연준 위원들의 잇따른 매파적 메시지에 12월 금리동결 전망에 무게 실리며 달러인덱스가 100 선을 상회한 가운데 시 고평가 논란 속 외국인 투자자들의 증시 자금 이탈 지속되면서 낙폭 되돌림
- 후반, 연준 추가 금리인하 전망 반영한 달러 약세와 당국의 강한 외환시장 안정 의지 등에 상방 변동성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저점 인식에 따른 달러 매수 수요에 1,460원대 하단 지지됨
 - 후반, 연준 고위 인사들의 비둘기 발언에 12월 인하 기대 되살아나며 강달러 압력은 다소 완화되었음에도 수입업체 결제수요와 기업들의 대미투자 달러 매수 등 수급 쏠림에 1,470원대 후반까지 상승
 - 외환시장 안정 위한 4자 협의체 구성과 부총리 메시지, 매파적인 11월 금통위 등 당국의 관리 의지에 장중 1,450원대로 저점 낮쳤으나, 저가 매수세 유입되며 1,460원대에서 견고하게 하단 지지된 형국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추이

11월 달러/원 평균환율 : 1,460.4
11월말 달러/원 환율 : 1,470.6



12월 전망

미 통화정책 경로의 불확실성과 달러 매수 우위 수급 영향 지속되며 환율 상승 압력은 여전할 것으로 보이나, 연준 추가 금리인하 기대에 따른 달러 약세 및 당국 경계감 등에 상단 제한될 전망

평균	1Q25	2Q25	3Q25	4Q25
달러/원 환율(원)	1,453	1,401	1,386	1,460 ^(F)

12월 FOMC 금리 결정을 둘러싸고 연준 내부 분열 심화되는 가운데 위험관리 차원의 인하 가능성 상존 및 비둘기 성향의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예상 등이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중부유럽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감에 따른 위험 선호 심리 및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로 인한 달러 약세에도 달러 매수 우위 수급 여건에 원화 약세 흐름 완화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

12월 달러/원 환율
1,450~1,480원 예상

- 12월 FOMC에서 연준이 물가 안정에 무게 두며 시장 기대보다 매파적일 경우 달러 지지 받겠지만, 비둘기 성향의 차기 연준 의장 임명 가능성 부각될 점에서 달러 약세로의 방향 전환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12월 FOMC 앞두고 인플레이션 재점화 경계하는 매파와 노동시장 약화 위험에 중점을 둔 비둘기파 인사들 간 견해차 심화됨. 미 9월 실업률 4.4%와 최근 점도표 고려하면 위험관리 차원의 추가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으나, 주요 데이터 확인 전까지 인하에 신중한 태도 견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다만, 차기 연준 의장 후보에 대한 시장의 주목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참모 해직 NEC 위원장이 유력하게 떠오르는 등 연준 정책 방향성이 비둘기파적으로 기울 것이란 전망 속에 달러는 약세 흐름 될 것으로 예상
- 우-러 중전 협상 진전 속에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위험 선호 심리로 이어질 소지. 한편, ECB 완화 사이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달러 약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
 - 美 정부의 중재 노력으로 우-러전 평화협상안 마련 및 우크라이나와의 협상 재개 등 중전 협의에 일부 진전 보이며 지정학적 불안 다소 완화된 점은 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를 강화할 요인으로 판단
 - 시장에서 연준 추가 금리인하 전망이 우위 점하고 있는 반면, ECB는 12월 회의에서도 금리 동결할 가능성 높아짐. 이는 연준과의 통화정책 방향성 차별화를 통해 달러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환율 상승세 지속 우려와 해외투자 확대 등에 수급 불균형 지속되면서 원화 약세 압력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다만, 높아진 당국 경계감과 한은의 매파 스탠스는 상단 제한할 요소
 - 환율 추가 상승 기대 속에 수출업체들은 달러 매도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수입업체 결제수요와 거주자 해외투자 확대, 기업들의 대미투자 달러 수요 등으로 인한 매수 쏠림은 원화의 구조적 약세 요인으로 고착화하는 양상
 - 다만, 금통위의 매파적 선택에 질어진 가운데 동결 기조 유지되며 한-미 금리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원화 강세를 지지. 또한, 관계부처의 외환시장 안정 대책 마련 의지는 상단 경계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 달러 매수 우위 수급 불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둘기 성향의 차기 연준 의장 임명 가능성과 연준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 우-러전 중전 낙관론 속 위험 선호 심리

자료: 하나은행

이종통화

엔/원 전망

11월 달러/엔 평균환율
: 155.2
11월 엔/원 평균환율
: 941.0

12월 엔/원 예상범위
: 940~955원

연준의 다소 엇갈린 당국자간 견해차에도 12월 매파 기초 이어질 전망 속 일본 정부 재정확대 정책 의지 또한 내부 약세 요인으로 예상. 다만, 정책변화 가능성 시사한 BOJ 및 시장 기대 등이 약세 제한 요인으로 예상

- (엔화 동향) 미 기업 감원 계획 증가 등 노동시장 약화 우려 속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달러 대비 강세 출발 후 다카이치 총리의 BOJ 완화정책 유지 압박 가능성 제기되자 되돌림 시현. 중반, 일본 당국 개입 경계감에도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 발표 예정 및 매파적인 FOMC 의사록에 엔화 약세 압력 확대되며 157엔대 진입. 후반, 연준 주요 인사의 비둘기 발언에 연준 12월 인하 기대 되살아난 가운데 BOJ 금리인상 가능성 부상하자 되돌림 보이며 156엔대 마감
- (엔/원 전망) BOJ의 경제, 물가 전망 부합 시 완화정책 조정 가능 언급 및 이에 대한 시장 기대에도 일본 행정부의 재정확대 정책 추진 지속에 의한 영향이 엔화 약세 지속을 견인할 전망. 여기에 연준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에도 미국내 현 고용의 국면전환 속 관세관련 물가 중시 기초의 매파 성향에 따른 측면 또한 엔화 약세 흐름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
- 일본 정부 재정확대 정책 지속 등이 전반적 엔화 약세 흐름 주요 동인으로 작용할 전망. 다만, BOJ의 경제 상황 및 물가 전망 부합시 완화 기초 조정 가능성 및 시장 기대 등이 약세 기초 제한 요인으로 판단
- 대외적 연준의 엇갈린 당국자들 정책 기초 속에 다소 매파적 영향이 반영될 측면 등도 엔화 약세 요인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엔/원 환율은 원화의 구조적 약세 흐름 등에 따라 950원대 후반 예상

유로/원 전망

11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1560
11월 유로/원 평균환율
: 1,688.3

12월 유로/원 예상범위
: 1,700~1,730원

유로존 성장세 다소 개선 흐름 속 관세 파급효과에 의한 물가 우려 등이 ECB 금리인하 중단 가능성에 영향 미친 측면과 우-러 종전 협의 등이 유로 강세 지지할 전망. 다만 연준 정책 불확실성은 상단 제한 요인으로 판단

- (유로화 동향) AI 고평가 논란 등 뉴욕증시 하락세에 위험회피 분위기 확산된 영향으로 유로화 약세 출발 후, 금리인하 중단 가능성 시사한 ECB 위원들의 발언에 힘입어 반등. 중반, 미 정부 섣다운 종료에 위험선호 심리 유입되며 1.16달러대로 급등했으나, Fed 12월 금리동결 전망 급부상하며 달러가 크게 강세 보이자 약세 시현. 후반, 우-러전 종전 기대감과 연준 내 비둘기파 인사들의 금리인하 지지 발언에 달러 대비 강세로 전환하며 1.16달러대로 상승 마감
- 독일 중심 물가 반등 양상 등 미국 관세 영향 전이 등을 고려한 ECB 금리인하 중단 요인은 유로화 강세 지지 요인으로 예상. 여기에 우-러 전쟁의 종전 협의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 감소 가능성도 유로존 성장 견인에 영향을 통해 유로화 강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12월 중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이 일부 유로 강세 제한할 것으로 보임
- 유로존 내 독일 물가가 다소 상승세 전환한 가운데 성장 개선 흐름 유지 등에 따라 ECB가 금리인하 중단 가능성을 내비친 측면 등이 유로 강세 지지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여기에 미국 주도 우-러 전쟁 종전안 협의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 저감도 유로 강세 요인으로 보이나, 연준정책 불확실성 내재 등이 강세 제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유로/원 환율은 1,720원 전후 예상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5년 12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연준, 양적긴축(QT대차대조표 축소) 종료 [자동차]현대차/기아 11월 도매 판매 데이터 한 11월 수출/입(YoY +3.5%, -1.5%), 무역 수지 S&P 글로벌 제조업 PMI(49.4) 미 11월 ISM 고용, 제조업, 구매물가 S&P 글로벌 제조업 PMI[F] 중 11월 Caixin 제조업 PMI(50.6) 유 11월 HCOB 제조업 PMI[F] 일 11월 지분 운영 제조업 PMI[F]	2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 시간 2025 중국 상하이 조선해양 전시회(~5) 2025 제약바이오 투자대전 2025 영국 핀테크 컨퍼트 박람회(~3) 한 11월 CPI(MoM +0.3%, YoY +2.4%) CPI 근원(YoY +2.2%) 유 10월 실업률(YoY 6.3%) 11월 CPI[P](YoY +2.1%) CPI 근원[P](YoY +2.4%) 일 11월 소비자대지수(35.8)	3 [자동차] 현대차/기아 11월 지역별 판매 데이터 미국 11월 판매 데이터 2025 대한민국 소프트웨어엑스포(~5) 한 3Q GDP[P](QoQ +1.2%, YoY +1.7%) 미 9월 수입물가(MoM +0.3%, YoY +0.0%) 수출물가(MoM +0.3%, YoY +3.4%) 11월 ISM 서비스, 고용, 신규주문 S&P 글로벌 종합, 서비스업 PMI[F] ADP취업자 변동(42k) 중 11월 Caixin 종합, 서비스업 PMI (51.8, 52.6)	4 [기업] 에이드바이오 코스닥 상장 리브스메드 수요예측(~10) 세계수소엑스포(WHE)(~7) 방사성 분과위원회, KDDX 사업자 선정 논의 2025 인도 롬바이 뷰티 전시회(~6) 미 10월 수출/입(MoM +0.1%, -5.1%) 무역수지 11월 Challenger Job Cuts(YoY +175.3%) 유 10월 소매판매(MoM -0.1%, YoY +1.0%)	5 [음식료] FAO 세계 식량가격지수 미 고용보고서 발표 연기 : 미 섰다운 장기화 영향으로 12/16일 발표 삼성전자, 갤럭시Z 트라이폴드 출시 한 10월 경상수지, 상품수지 미 10월 소비자신용지수 12월 미시간 소비자신뢰, 기대, 경기연황[P] 미시간 1년, 5~10년 인플레이션[P] 유 3Q GDP[T](QoQ +0.2%, YoY +1.4%) 고용[F](QoQ +0.1%, YoY +0.5%) 일 10월 선행지수, 동행지수[P]	6
7	8 RBA 통화정책회의(~9) RBA 통화정책회의(~9) :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3.6%로 동결. 고용 증가세 둔화되면서 2개월 연속 동결 [채권] 미국 3년물 국채 입찰 미 11월 뉴욕 연준 1년 기대 인플레이션 (3.2%) 중 11월 수출/입(YoY -1.1%, +1.0%), 무역 수지 유 12월 섹터스 투자자대지수(~7.4) 일 11월 경기관찰조사 연황(49.1) 3Q GDP[F](QoQ -0.4%, YoY -1.8%)	9 미국 FOMC(~10) [미국 FOMC(~10)] (1) 지난 회의에서 정책금리 3.75%~4.00%로 25bp 인하하고 양적긴축(QT) 종료 공식화 (2) 연준 매화 발언 이어지고 있으나 고용 둔화 추세 속에서 인하 기조 이어갈 지 주목 [채권]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 미 10월 구인이직보고서 구인건수 11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98.2) 중 11월 통화공급 M2(YoY +8.2%) 일 11월 통화량 M2(YoY +1.6%)	10 지존일 [기업] 페스카로 코스닥 상장 [IT] 대만 11월 수출 데이터 [음식료] USDA 세계 곡물 수급 전망 미 JOLTS 구인건수 미 MBA 모기지 구매지수 한 11월 실업률(2.6%) 중 11월 CPI(YoY +0.2%) PPI(YoY -2.1%) 일 11월 PPI(MoM +0.4%, YoY +2.7%)	11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1) 추가지수 선물과 옵션, 개별주식 선물과 옵션 네 가지 파생상품 만기일 겹치는 날 (2) 이번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증가 기증으로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 정기변경 진행 OPEC 일간 원유시장 보고서 [채권] 미국 30년물 국채 입찰 [자동차] 중국 11월 판매 데이터 한 12월 1~10월 수출/입(YoY +6.4%, +8.2%) 미 11월 PPI, PPI 근원 일 11월 공작기계 수출[F]	12 코스피200,코스닥150 정기변경 13 코스피200, 코스닥150, KRX300 정기변경 : 6, 12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익일에 주요 대표지수 구성종목 정기변경 진행 [유통리터] 한국전력 전력통계월보 공시 2025 대한민국 원자력대전(~13) 한 11월 수입물가(MoM +1.9%, YoY +0.5%) 수출물가(MoM +4.1%, YoY +4.8%) 일 10월 설비가동률 광공업생산[F]	
14	15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합병 신주상장 [기업] 티앤씨 코스닥 상장 미 12월 NAHB 주택시장지수(38) 뉴욕 엡파이어 제조업지수(18.7) 중 11월 소매판매(YoY +2.9%) 광공업생산(YoY +4.9%) 신규주택가계, 실업률(5.1%) 유 10월 산업생산(MoM +0.2%, YoY +1.2%) 일 10월 3차산업지수(MoM +0.3%)	16 미 고용보고서 한국은행 11월 금융위 의사록 공개 [기업] 아크빌 코스닥 상장 한 10월 통화공급 M2(MoM +0.7%) 미 11월 수입물가, 수출물가 경제활동 참가율(62.4%)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119k) 민간부문 고용자수 변동(97k) 시간당 평균 임금(MoM +0.2%) 실업률(4.4%) 12월 뉴욕 연준 서비스업 경기활동(~21.7) S&P 글로벌 제조업 PMI[P] S&P 글로벌 종합, 서비스업 PMI[P]	17 2025 일본 도쿄 세미콘 반도체 전시회(~19) 이노스페이스, 소형 로켓 한빛-나노 상업 발사 [채권] 미국 20년물 국채 입찰 유 11월 CPI[F](YoY +2.1%) CPI 근원[F](YoY +2.4%) 일 10월 핵심지계수주(MoM +4.2%) 11월 무역수지 수출/입(YoY +3.6%, +4.2%) 영국 CPI 상승률 MoM, YoY 독일 IFO 기업 한경지수	18 ECB,BOE통화정책회의, 미국CPI ECB 통화정책회의 : 지난 회의에서 예금금리 2.0%으로 3연속 동결. 경기 둔화에도 하방 위험 완화되었다는 판단 BOE 통화정책회의 :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4.0%으로 2연속 동결. 경기· 고용 약화로 내부 인하 압력 높아짐 미 11월 CPI, CPI 근원 12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1.7) 캔자스시티 제조업활동(8) 유 10월 건설 생산(MoM -0.5%)	19 BOJ 금융정책위원회 미국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BOJ 금융정책위원회 :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0.5%로 6연속 동결 금리 동결 기조 유지에 연화 약세 지속 한 11월 PPI(YoY +1.5%) 미 11월 PCE 물가, 근원 PCE 물가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수 기준주택매매(MoM +1.2%) 12월 캔자스시티 연준 서비스업 활동 미시간 소비자신뢰, 기대, 경기연황[F] 미시간 1년, 5~10년 인플레이션[F] 일 11월 전국, 국내 CPI	20
21	22 [채권] 미국 2년물 국채 입찰 ICMCT 2025 도쿄 한 12월 1~20일 수출/입(YoY +8.2%, +3.7%) 미 11월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 지수 · 12/19 유 10월 경상수지 12월 소비자대지수[P] 영국 GDP성장을 YoY, QoQ	23 한국은행 금융안정회의 [채권] 미국 1년물 국채 입찰 미국 5년물 국채 입찰 미 12월 필라델피아 연준 비제조업 활동 컨퍼런스보드 소비자대지수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리치몬드 연준 경기연황 유 11월 EU27 신규 차량등록	24 [휴장] 독일(크리스마스 이브) 미국 중시 조기 폐장(크리스마스 이브) : 현지시간 오후 1시에 조기 마감 BOJ 10월 금정위 의사록 공개 [채권] 미국 7년물 국채 입찰 2025 서울아토스(~28) 한 11월 소매판매 12월 소비자심리지수 일 10월 선행지수, 동행지수[F] 11월 PPI 서비스	25 한국 휴장(크리스마스) [휴장]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홍콩 등 (크리스마스) [자동차] 유럽 11월 판매 데이터 [IT] DRAM 11월 가격 동향 2025 홍콩 식품 박람회(~29) 일 11월 주택착공건수	26 12월 결산법인 배당주 매수시한 27 [휴장] 영국, 독일, 홍콩(박싱 데이) 박싱 데이(크리스마스 다음날 소형 세일) 배당주 매수 시한 : 12월 결산법인의 배당 받기 위해서 마지막 거래일 ~2거래일까지 매수거래 체결해야 함 일 11월 실업률, 소매판매 광공업생산[P] 12월 도쿄CPI	
28	29 12월 결산법인 배당락일 [12월 결산법인 배당락일] (1) 당기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진 날을 의미. (2)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금융지주, 자동차 등 고배당주 배당기준일 3~4일로 변경 BOJ 12월 금정위 요약본 공개 2025 서울콘(SEOULCon, ~1/1) 2025 하반기 통력 설비 경쟁입찰 기한 : 육상통력 230MW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미 11월 미결주택매매 12월 달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30 2025년도 한국 중시 폐장일 2025년도 한국 중시 마지막 거래일 한 11월 광공업생산 산업활동동향 한국은행 금융가계간 가중평균 금리 12월 CPI, CPI 근원 미 10월 FHFA 주택가격지수 S&P 코어로직 CS 20개 도시 12월 MNI 시카고 PMI 달러스 연준 서비스업 활동	31 한국 휴장(연말 휴장) [휴장] 한국, 일본, 독일(연말 휴장) HLB-HLB사이언스 합병 법인 출범 [IT] 11월 DRAM, NAND FLASH 계약가격 중 12월 종합, 제조업, 비제조업 PMI 미 FOMC 회의록 한 CPI 상승률 YoY, MoM 미 MBA 모기지 시장지수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